

黃腸禁標에 관한 考察¹

朴 烽 宇²

A Study on *Whangchangkumpyo*(黃腸禁標)¹

Bong-Woo Park²

요 약

黃腸禁標는 黃腸木의 산출지임을 알려주는 林業 歷史資料인 동시에 文獻으로 남아있는 歷史的 사실을 補充해 주는 귀중한 現場 資料이다. 本 研究는 현재까지 발견된 黃腸禁標 6개를 중심으로 각각의 禁標에 대한 位置, 規模, 銘文, 發見 및 報告 過程, 關聯 文獻과의 比較 檢討를 통하여 禁標의 價値를 綜合的으로 考察하였다.

黃腸禁標의 比較分析 및 考察을 통하여 우량한 소나무 資源 分布地의 확인, 禁山과 封山간의 位相, 地名의 浮沈, 옛 道路網의 斷片 등을 究明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黃腸禁標에 대한 價値認識의 提高와 保存의 필요성에 대하여 提案하였다.

ABSTRACT

Whangchangkumpyo(黃腸禁標 : forbidden mark of *whangchangmok* pine tree cutting) is not only a historical forestry material but also a valuable physical proof supporting historical facts recorded in written documents. This study, using 6 *whangchangkumpyo*'s which have been discovered so far, has investigated a comprehensive value of *kumpyo*(禁標). For this investigation, the location, size, inscription, discovery of them and how they were reported have been compared with what is recorded in written documents.

A comparative analysis of *whangchangkumpyo* and its investigation have enabled the author to identify the distribution of high quality pine trees, the political and economic significance of *kumsan*(禁山) and *bongsan*(封山) at the time, changes in geographical names over time, bits of tracks from old road network. Finally, it is suggested in this study that the recognition of the value of *whangchangkumpyo* should be more encouraged and the protection of it should be necessary.

Key words : *whangchangmok*(黃腸木), *bongsan*(封山), *kumsan*(禁山), *forestry history*

緒 論

黃腸禁標는 黃腸木을 생산하는 黃腸封山에 세운 境界표로서의 標石으로 朝鮮時代의 林業 政策을 엿 볼 수 있는 소중한 역사 유물이며 현재에 있어서는 과거 우량한 소나무 產地였던 곳의 모습을 살펴 볼 수 있는 귀중한 단서가 되는 것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장금표에 대해서는 그동안 학문적으로 연구된바가 거의 없었다.

황장금표는 현재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치악산 구룡사입구에 소재한 것이 국내 유일의 것으로 알려져 강원도 지정기념물 30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이러한 황장금표는 현재 몇 개가 보고되었는지도 일정하지 않고(박봉우, 1992, 1993; 최광석,

¹ 接受 1996年 3月 13日 Received on March 13, 1996

² 강원대 임과대학 College of Forestr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on, 200-701

1994 ; 임경빈, 1995), 황장금표의 가치는 무엇이며 황장금표상의 銘文의 내용은 무엇인지 거의 연구가 되고 있지 않다. 황장금표에 대한 보고는 박봉우(1992, 1993)와 최광식(1994)에 의한 것이 있으나 현재까지 발견된 황장금표들을 망라하고 있지는 못하다.

본 고찰에서는 그간에 발견된 황장금표를 망라하여 標石의 위치 및 규모, 표석의 발견 과정 및 銘文의 내용, 地理書와의 관련성, 표석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그리고 보존 필요성에 관한 사항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2. 황장목과 황장금표

황장금표는 黃腸木을 생산하는 황장봉산 혹은 황장금산에 立標한 것인데, 황장목의 사전적 해석은, “梓棺을 만드는데 쓰는 질이 좋은 소나무”(이희승 편, 1961)이다. 황장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우리 나라 소나무 중에서도 몸통 속 부분이 누런 색을 띠고, 재질이 단단하고 좋은 나무로서, 그 심재부를 취하여 조제한 목재는 주로 왕실에서 사용하는 관인 梓宮用으로 쓰인다”라고 하였다(박봉우, 1993). 황장목은 이렇듯 왕실에서 사용하는 관을 만드는데 쓰는 소나무인데 棺材 외에도 陵室을 축조할 때에도 사용하였고(세종장헌대왕실록 제 113권, 세종 28년 7월 19일 기사), 건축 용재로도 사용하였다. 특히{영조실록} 영조 원년 8월 22일 기사에 의하면, “(줄임) 太廟가 狹窄하여 다시 奉安할 곳이 없으니, 마땅히 다시 3間을 더 지어야 하는데 기둥과 대들보의 재목을 더욱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마땅히 兩南의 섬 中外에 梓宮으로 쓸 黃腸木을 가져와 써야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옹계 여겼다”라 하여 宗廟를 증축하면서 黃腸木을 가져다 쓰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황장목은 왕실에서 사용하는 것인 만큼 禁養, 유지 관리, 벌채에 이르기까지 법전에 규정하고 있다. {續大典}(1746년)에 의하면, 전라도에서 산출하는 황장목은 外梓宮用으로 취하고, 강원도와 경상도에서 생산되는 황장목은 內梓宮用 판재로 쓰이는데 내재궁용의 것은 길이 7척 1촌에 여분 2척 5촌, 폭 2척 4촌에 여분 4촌, 두께 4촌에 여분 3촌 규격이어야 하고, 옛 법식의 斫伐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황장봉산에서의 황장목의 채취는 敬差官을 파견하여 강원도의

경우는 5년에 한번, 경상도와 전라도에서는 10년에 한번 채취하여 재궁을 선택하도록 하며, 필요 한 때에 따라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내재궁용의 판재에 대한 寸數는 {續大典}보다 약 50년 앞선 {受教輯錄}(1698) '刑典' 禁制 條에 이미 보이고 있는데, 白邊을 제외하고 적어도 2척 8촌의 폭을 확보하고 있는 황장목을 키워 내려면 장구한 시일이 걸린다는 것은 불문 가지의 일로 황장목을 키우고, 관리하는데 쏟은 노력과 관심은 지대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王朝實錄의 곳곳에서 보이는 황장목에 관한 기사가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며, 더욱이 황장목은 당시의 주요한 관심사의 하나인 禮葬과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빈번하게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3. 황장금표의 설치 근거

朝鮮時代に 立標한 禁標가운데 현재 알려져 있는 것으로는 1)용도가 불확실한 금표, 2)산삼의 채취를 금하는 금표, 3)황장금표가 있다. 1)은 현재 그 용도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호패 모양의 비석으로 단순히 “禁標”가 음각되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영월군 주천면 빙허루 입구에 있는 것이 한 예이다. 이 금표비는 裏面에 “咸豐 九年 二月”의 銘文이 있는데, 銘文은 설치 년도를 말해 주는 듯한데, 함풍 9년은 철종 10년(1859년)이며, 철종 대왕의 胎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는 강원도 평창군 가리왕산에 소재하고 있는 蓼山封標가 그 예인데 山蓼의 임의 채취를 금하면서 지리적 경계를 보여 주고 있다. 이 봉표에는 “江陵府蓼山封標”의 銘文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地名 馬項”, 우측에는 “旌善界”라는 명문이 縱書로 陰刻되어 있다. 봉표는 크기는 높이 80센티미터, 가로 37센티미터에 달하는 자연석으로 되어 있다. 1992년에 임도를 개설하면서 발견하여 비석모양으로 세워 놓고 있다. 봉표의 명문은 봉표가 서있는 곳이 “마항”이며, 강릉과 정선의 경계지임을 밝히고 있다. 3)은 황장목 소나무의 임의 채취를 금하는 표지이다.

이러한 금표는 조선 시대의 주요한 경계표지였고, 현대에 와서도 유사한 경계표지 성격의 것이 사용되고 있다. 현재 국유림지에 경계표지를 입표하고 있으며, 국유림대부지에도 標柱를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朝鮮時代に 세운 이러한 경계표지는 법령에 근

거하여 세우고 있는데, 법령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곳에 금표를 세운 것을 알 수 있다. {經國大典}(1485년) '吏典'에 의하면, 漢城府는 “京都의 人口 帳籍, 市廛, 家舍, 田土, 四山… 등에 관한 사구를 맡는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四山은 京都를 둘러싸고 있는 네 산 즉, 白岳山(北), 木寬山(南), 仁王山(西), 駝駱山(東)을 일컫는데, 문종 1년(1451년)에는 四山の 地畵을 보전하기 위하여 성 안쪽은 물론 성외의 산등마루까지도 伐石하는 것을 금하였다(한우근 외, 1995). {大典會通}(1865년) '工典'에 의하면 사산에 標를 세워 地境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1765년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四山禁標圖}가 남아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금표는 城底 5리와 10리 사방에 세운 石標를 말한다”고 하였다(허영환, 1989).

{經國大典} '工典' 栽植 條에 의하면 “도성 내외의 산에는 표식을 세우고…”라 하였으며, {大典後續錄}(1543년) '工典' 柴場 條에서 성군관 柴場에, 雜令 條에서 禁山에 立標함을 정하고 있다. {大典會通} '工典'에 의하면 이러한 표식의 설치는 四山 외에도 성군관에서 사용하는 柴場 주위에, 각 陵寢의 香炭山에, '刑典'에 의하면 園陵과 封山에, '戶典'에 의하면 封山에 세웠음을 알 수 있다. 立標의 위치는 사산의 경우를 보면 {受教輯錄}(1698년) '刑典' 禁制 條에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新補受教輯錄}(1739년 경)에 의하면 松田과 같은 禁處에는 山腰에 定標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黃腸木을 채취하는 封山에 세운 標는 法典에 의거하여 立標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受教輯錄} '刑典' 禁制 條에 의하면 “황장목, 船材所가 있는곳에 함부로 들어와 設庄을 하는 자는 곤장 1백에 3천리 밖으로 유배시킨다”고 했으며, 또 “황장목은 敬差官이 친히 산에 올라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封하고 숫자를 헤아린다. 혹 사사로이 벌채한 곳이 있거나, 官이 위험함을 피해 지시 사항을 다하지 않거나, 목수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를 숨기거나 했다가 탄로 나는 경우에는 守丞을 파직하고 監官 이하는 변방 멀리 定配한다”고 하여 엄중한 형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立標하여 황장봉산임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형벌은 이후 더욱 강화되어 {新補受教輯錄} '刑典' 禁制 朝에 의하면 “封山の 큰 소나무를 10주 이상 베 자는 梟示하고, 10주 이하인 경우에는 減

死 定配한다”고 했으며, “黃腸封山の 소나무 1주를 베 자는 논하여 무겁게 다스린다며, 受教에 의하면 곤장 일 백에 3년 복역에 처하였다”하니 黃腸禁標의 입표에는 犯法을 하지 않도록 하는 警戒의 의미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4. 황장금표와 금표상의 명문

황장금표는 현재까지 6개가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標石에 따라 약간 다른 명문을 보이고 있어 각기 달리 부를 수 있겠으나 本稿에서는 일반적으로 불리는 '황장금표' 또는 '금표'로 통칭하기로 한다. 각 각의 황장금표에 대하여 위치, 명문, 표석의 규모, 발견 경위에 대하여 하나 하나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1)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소재 2개의 금표

원주시 학곡리에는 2개의 금표가 있다. 하나는 강원도 지정 기념물로 되어 있는 구룡사 입구의 것으로 국내 유일의 것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새로 발견한 것으로 구룡사 입구에서 직선 거리로 100여 미터 떨어진 새재 마을 입구에서 있다.

강원도 지정 기념물 30호인 구룡사 입구의 것은 자연석에 “黃腸禁標”라 陰刻되어 있다(사진 1). 또 이 금표에는 “禁”字의 윗부분에 “黃腸禁標”와는 달리 작고 얇은 새김으로 “東”字가 새겨져 있다. 새재 마을 입구에 있는 다른 하나는 마을로 들어가는 길가에 있다. 명문은 “黃腸外禁標”라 역시 음각으로 되어 있다. 이 역시 자연석에 刻字하였는데 구룡사 입구에 있는 것은 다듬지 않은 면에 橫書로 하였고, 새재 마을 입구의 것은 방향의 틀을 만들고 그 안에 “黃腸”과 “外禁標”를 두 줄로 縱書하고 있다(사진 2). 표석의 크기는 일부 매몰되어 있어 정확한 계측이 불가능하나 방향의 틀은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25센티미터 정도이며, 글자의 크기는 대략 가로 세로 6센티미터 내외이다.

이 두 개의 황장금표는 각 각 “東”字와 “外”字가 새겨져 있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刻字의 書體를 비교하여 볼 때 서로 다른 시기에 立標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금표가 놓여진 위치로 볼 때, 구룡사 입구에 있는 금표는 새재 마을 입구에 있는 금표의 동쪽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관성을 놓고 보면 “東”字가



사진 1.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구룡사 입구의 금표 전경과 명문



사진 2.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새재 마을 입구의 금표 전경과 명문

나중에 “黃腸禁標”에 첨자된 것으로 판단되며, 새재 마을 입구에 있는 것보다 시기적으로 앞선다고 할 수 있다. 새재 마을 입구에 또 다른 금표, “外禁標”를 세운 것은 뒤에 다시 논의하겠지만 公告의 효과를 위하여 행인의 황래가 많은 곳에 立標하고자 함에 있다고 본다.

이곳의 황장금표에 대한 발견 경위를 살펴보면, 구룡사 입구의 것은 정확하게 언제, 어떤 경로로 발견, 보고되었는지 알 수 없고, 1979년에 강원도 지정 기념물 30호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새재 마을 입구 길가에 있는 “黃腸外禁標”는 1993년 원성군 일대의 역사 문화 유적을 조사하면서 발견된 것이다(강원향토사연구회, 1994).

2)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두산리 황정골 소재 금표

황정골에 소재하는 황장금표는 “前面 규모가 높이가 110cm, 폭 55cm의 아담한 비석 모양으로 세워져 있는데 마을 교로에 의하면 조선조 순조 2년(1802)에 비석이 세워졌으며, 당시 두산리 뒷산

에는 울창한 수림이 있었는데 수목 가운데에는 고급 널(檜)로 쓰여지는 황장목이 많이 있어서, 조정에서는 이 황장목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람의 출입을 금하게 하고, 이 금표비를 세운 것이라고 하면서, 마을 이름을 황정골이라고 부르게 된 것도 이에 연유한 것이라 하였다”(영월군, 1982). 그러나 필자가 1993년 7월 답사 시에 만난 또 다른 주민의 말을 들어보면 처음부터 지금과 같이 비석의 형태로 서 있었다고 하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또 비석의 형태로 세워져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명문을 음각한 부분 외에는 어느 곳도 인공이 가해진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지금까지 발견된 황장금표가 자연식에, 자연스럽게 놓여져 있는 상태 그대로인 것으로 볼 때 이곳 황정골의 금표만 유독 비석 형태로 세웠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현지 주민의 말도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는데, 한 주민에 의하면 이 돌은 黃井橋가 놓여지기 전까지는 길가의 가장자리에 누워 있었다고 한다. 이러던 차에 글자가 刻印 되

어 있는 것을 발견한 당시(1981년 경) 두산 국민 학교(현 두산 초등학교)의 유식종 교감으로부터 합부로 다루지말 것을 권고 받았고 그 후 다리가 완공되자 현재의 위치에 옮겨 비석처럼 세웠다고 한다(사진 3).

황정골의 황장금표는 “黃腸禁山”을 草書體 縱書로 음각하였다. 글자의 크기는 대략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5-20센티미터 정도이고 맨 아래

“山”字는 마모가 심한 편이다.

3)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안산 기슭 소재 금표

안산 기슭 廢寺地에 소재하는 황장금표는 1986년 강원대학교 박물관 조사단에 의해서 보고된 것인데(강원대 박물관, 1986), 다른 금표와는 달리 길의 축대석 한 가운데 있는 돌을 선택하여 금표로 삼았다(사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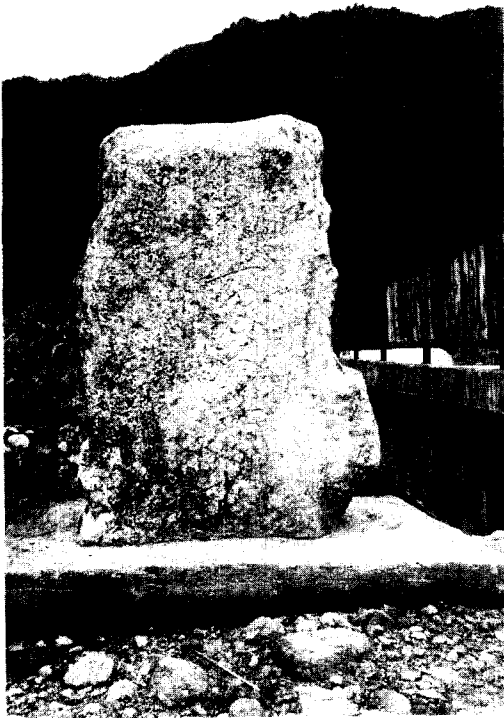


사진 3.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두산2리 황정골의 금표 전경과 명문.



사진 4.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안산기슭의 금표 전경과 명문.

금표의 명문은 전체가 석줄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줄은 “黃腸禁山” 둘째 줄은 “自西古寒溪”, 셋째 줄은 “至東界二十里”를 縱書로 음각하였다. 안산 기슭에 소재하는 이 금표는 ‘여기 서쪽 고 한계에서부터 동쪽으로 20리까지를 황장금산의 경계’로 정한다고 하는 구역을 명시하고 있다.

4)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법흥1리 새터 마을 소재 금표

새터 마을의 황장금표는 최근에 발견된 것인데 이 마을에 거주하는 李在浩씨가 제보하여 영월 향토사 연구회가 1994년 4월 25일 답사하여 명문을 확인하였고, 필자가 1995년 6월 18일 영월 향토사 연구회 회원, 강원대 박물관 학예사와 함께 답사하여 황장금표임을 확인하였다. 금표는 도로에서 2미터 떨어진 발에 놓여있다. 前面 규모가 높이 265센티미터, 가로 340센티미터에 이르는 자연석으로, 금표의 명문은 두 줄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줄은 “原州獅子黃腸山”, 둘째 줄은 “禁標”를 縱書로 음각하였다(사진 5). 글자는 가로 20센티미터, 세로 15-20센티미터 크기이다. 새터 마을의 금표는 獅子山이 황장산임을 명시하고 있다.

5) 경북 울진군 서면 소광리 장군터 용소 옆 소재 금표

장군터 龍沼 옆에 위치하고 있는 이 금표는 1993년 10월 3일 김태수 씨가 三陟의 향토 자료를 조사하던 중 발견 보고한 것으로(김태수, 1993), 필자가 황장금표임을 확인하였고(1994년 1월, 김태수 씨에게 私信으로 확인해 주었고, ‘영동피플’

39호-1994년 3월 9일자에 확인 기사 게재), 금표의 명문에 대해서는 최광식 교수가 1994년 5월 ‘전국 역사학 대회’(최광식, 1994)에서 연구 발표한 바 있다.

황장금표는 도로에서 개울가 쪽으로 2미터 떨어진 곳에 놓여 있다. 규모는 명문이 새겨진 前面이 높이 90센티미터, 가로 250센티미터이며 자연석이다.

銘文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른쪽은 황장금표에 관한 내용이고, 왼쪽은 최고수에 의해 확인된 부분인데 山直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오른쪽 명문의 구성은 다섯줄로 되어 있는데, 첫째 줄은 “黃腸封”, 둘째 줄은 “界地名生達”, 셋째 줄은 “規安一王山”, 넷째 줄은 “大里堂城”, 다섯째 줄은 “四(?)回”를 縱書로 음각하였다(사진 6). 글자의 크기는 가로, 세로 10센티미터 정도이다. 명문의 내용은 황장목을 생산하는 봉산의 경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생달 고개(生達峴), 安一王山은 현재도 사용하는 지명이며, 大里堂城은 확실하지 않다. 1940년에 그려진 소광리 화전촌 지도(울진군, 1991)와 비교해 보면 다리골, 위하는 나무(성황목 인 듯 싶다) 등의 지명과 위치가 보이는데 각 각 대리, 당성과 연결되는 것으로 본다면 생달현에서 당성에 이르는 일련의 선을 그려 볼 수 있다. 다섯째 줄의 내용은 불분명한 부분이다. 왼쪽 부분은 육안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운데, 오른쪽의 다섯째 줄에서 약 76센티미터 떨어져 “山直命吉”이라고 알게 되어 있다.



사진 5.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법흥1리 새터마을의 금표 전경과 명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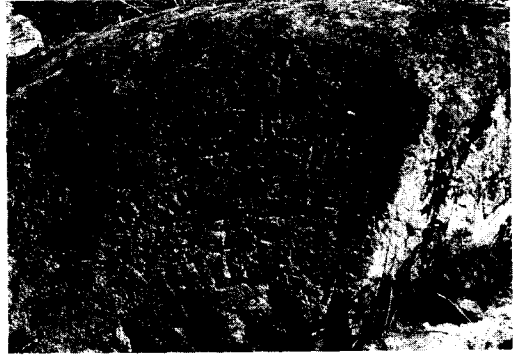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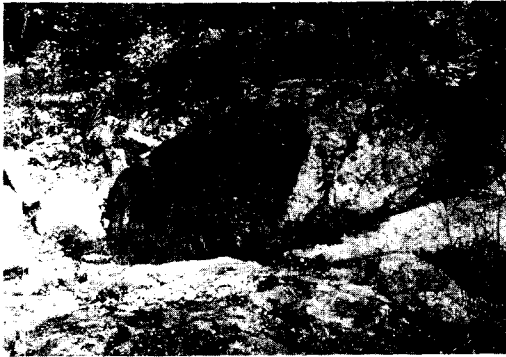


사진 6. 경북 울진군 서면 소광리 장군터 용소 옆의 금표 전경과 명문.

장군터 용소 옆에서 발견된 이 금표는 앞서 언급한 금표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에 더하여 황장봉산의 관리자가 명시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5. 역사지리서의 황장봉산과 현존 금표와의 비교 고찰

黃腸封山, 黃腸處, 혹은 黃腸木을 기록하고 있는 자료로는 {海東地圖}(1750년 경)와 金正浩가 기록한 {大東地志}(1864년) 등의 地理書가 있고, 法典으로는 {續大典}(1746년; 영조 22년), 行政便覽이라 할 수 있는 {萬機要覽}(1808년; 순조 8년)이 있다. 물론 조선 시대의 전국적인 지리서인 {新增東國輿地勝覽}(1530년), {輿地圖書}(1757년), 김정호가 제작한 {靑邱圖}(1834년), {大東輿地圖}(1861년)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데, 이들 서책에는 황장목, 황장봉산에 관한 언급이 없다.

이러한 자료 가운데 {續大典}, {萬機要覽}, {大東地志}가 일관성을 가지고 황장봉산을 기록하고 있고, 작성 시기가 근사한 {海東地圖}와 {續大典}의 기록과 비교해 보면 {海東地圖}는 황장봉산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記述하지 못하고 있고, 동일인이 제작 기술한 {靑邱圖}, {大東輿地圖}, {大東地志}를 보면 {靑邱圖}와 {大東輿地圖}에서는 {大東地志}와는 달리 黃腸封山과 封山을 구분하지 않고 封山으로 표기하고 있다. {海東地圖}의 경우에는 행정구역별로 몇 몇의 도면에서 黃腸封山, 黃腸木을 기록하고 있다. {海東地圖}에 보이는 황장봉산, 황장산은 강원도와 경상도에서만 표 1과 같이 나타난다.

{海東地圖}는 황장봉산에 대한 기록이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행정구역 별로 다른 자

표 1. {海東地圖}에 보이는 黃腸封山과 黃腸山의 분포

도 별	지 명	개 소	표기상태
강원도	금성현	1	황장산
	황성현	1	황장산
	평창군	1	황장
	원주목	2	황장, 백양산황장
	홍천현	1	황장산
	고성군	1	황장산
	정선군	1	황장산
	회양부	1	황장금산
	남천현	1	황장산
소 계	(9)	10	
경상도	영덕현	1	註記에 기록 : (구품동)황장봉산
	봉화현	1	황장, 註記에 기록 : (태백산)황장봉산
	영양현	1	황장산
	분경현	1*	황장, 註記에 기록 : 구산황장봉산
소 계	(4)	4	
총 계	(13)	14	

* {海東地圖}는 한 가운데에 지도를 그려 넣고 그 외곽에 연혁, 행정구역, 山川, 土產 등등의 기사를 실는 註記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행정구역마다 이러한 조항을 일관성있게 갖추고 있지 못하다. 문경현의 경우 지도상에 나타난 黃腸處가 도면 외 기록인 구산황장 봉산과 일치하는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료와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역시 중요한 자료이다.

朝鮮時代 황장봉산의 지리적 분포를 문헌별로 정리하여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이러한 황장봉산의 지리적 분포를 바탕으로 당시의 지도와 현재 발견된 금표를 어우러 분석 고

표 2. 행정구역별, 資料別 黃腸封山の 분포상 비교

도 별	지 명	續大典	萬機要覽	大東地志
강원도	금성	1	4	1
	양구	1	3	3
	인제	1	3	2
	횡성	1	1	1
	영월	1	1	1
	평창	1	1	1
	이천	1	1	1
	원주	1	3	2
	홍천	1	2	2
	강릉	1	3	1
	고성	1	1	1
	양양	1	2	2
	정선	1	1	1
	회양	1	1	1
	삼척	1	6	1
	낭천	1	2	2
	통천	1	1	1
	평강	1	4	4
	울진	1	3	1
춘천	1		1	
평해	1		1	
간성	1		1	
소 계		(22)	43 처	32 처
경상도	영덕	1	1	1
	봉화	1	1	1
	안동	1	8	1
	영해	1	1	1
	예천	1	1	1
	영양	1	1	
	문경	1	1	1
소 계		(7)	14 처	6 처
전라도	순천(거마도)	1	1	1
	강진(완도)	1	1	1
	홍양(절이도)	1	1	1
소 계		(3)	3 처	3 처
총 계		(32)	60 처*	41 처*

*는 편의상 個所를 나타내기 위한 구분이다. {大東地志}에는 황장봉산, 황장처를 구분하고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찰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알 수 있다.

- 1) 황장금표는 우량한 소나무 產地를 알려주고 있다. {受教輯錄}, {續大典}에 황장목의 規格 寸數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黃腸木 소나무는 상당한 크기에 이르는 大徑木임을 알 수 있다. 아직도 원주 구룡사 입구의 금표, 인제군 안산 기슭의 금표, 영월군 사자산 금표가

있는 곳에서는 黃腸木의 후예로서의 우량한 소나무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안산의 금표와 장군터의 금표에는 해당 구역까지 명시되고 있으며, 장군터의 금표가 있는 소광리 일대는 현재도 우수한 소나무 육종림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곳이다. 영월군 황정골의 경우는 주변이 거의 일본 잎갈나무 조림지로 변해 아쉬움을 주고 있는데 주민에 의하면 아직도 골짜기 깊숙이에는 아름드리 소나무가 남아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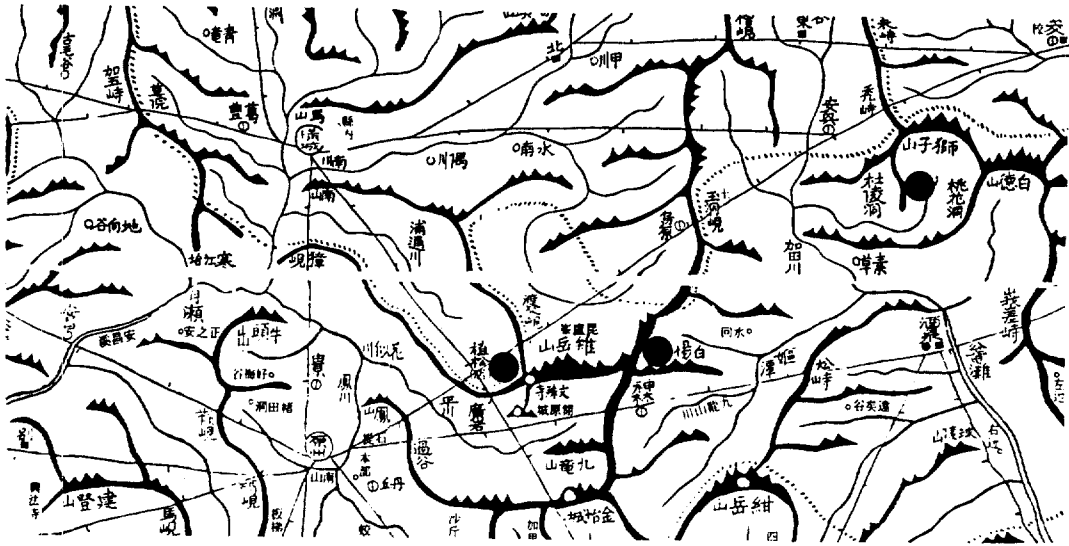
- 2) 현재 발견된 禁標에 의하면 황장목을 채취하던 곳, 황장봉산은 대체로 내를 끼고 있어 별채한 황장목은 水運을 활용하여 운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치악산 구룡사 입구, 영월군 사자산, 영월군 황정골, 울진군 장군터 모두 충분한 수량을 가지고 있는 곳임을 알 수 있고, 인제군 안산 기슭의 경우도 한계천을 지적에 두고 있는 위치에 있다(지도 1, 2 참조).

- 3) 禁山과 封山에 대한 성격의 차이를 찾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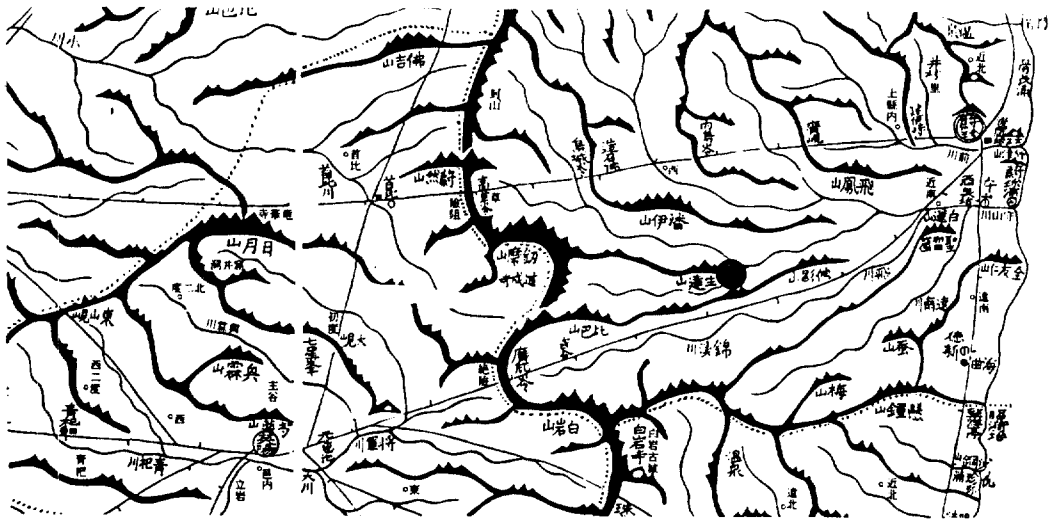
강원도 원주시 학곡리 구룡사 입구에 소재한 황장금표의 경우가 이러한 차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곳의 황장금표는 황장봉산임을 말해 주는 것일진데 지도상에 나타난 표기는 단순히 “禁山”으로 표기하고 있다(지도 3). 이러한 것은 황정골의 금표, 안산의 금표에 황장금산이라는 刻字와 관련시켜 볼 수 있다. 즉, 이것은 禁山에서도 황장목을 생산하였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海東地圖}에 보이는 치악산의 경우는 지도가 작성될 당시에는 禁山이었는데 그 이후에 황장봉산으로 지정되어 금표가 입표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는데, {海東地圖}에는 강원도 회양부에도 황장금산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黃腸山, 封山이라는 표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 4) 禁標上的 명문을 비교하여 황장목을 생산하던 장소의 규모를 판단할 수 있다. 즉, 지도 3에 의하면, 獅子山 “黃腸”과 “白楊山黃腸”이 있고, 禁山이 있는데, 이것은 既 발견된 금표의 명문을 비교해 볼 때, 인제의 황정금산, 울진의 황장봉, 영월의 황장금산, 사자황장산임에 비하여 치악산의 것은 황장금표로 구역면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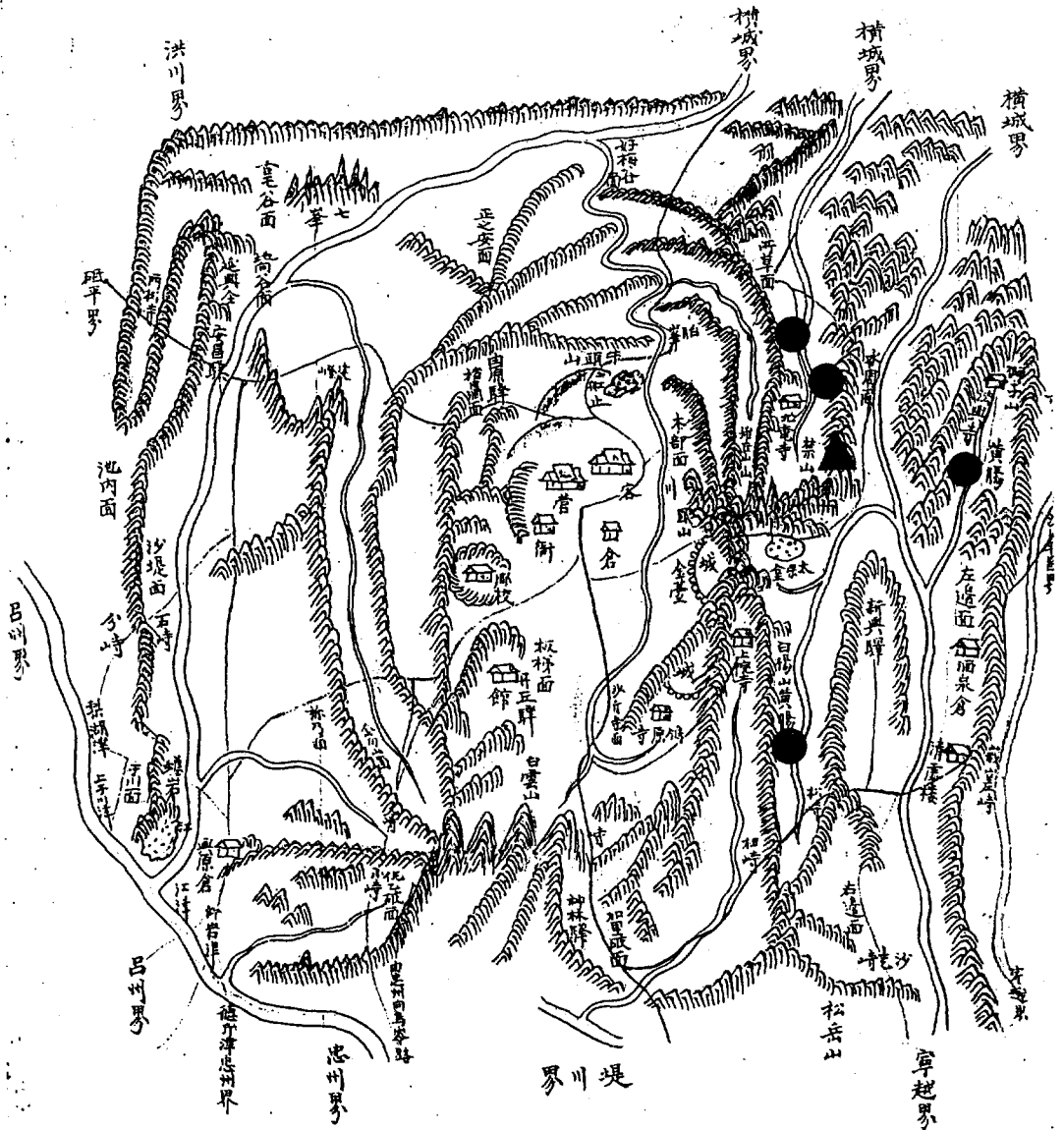
지도 1. 『大東輿地圖』(이우형, 1990)에 표시해 본 황장금표(●)의 위치



지도 2. 『大東輿地圖』(이우형, 1990)에 표시해 본 황장금표(●)의 위치.

개념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곳을 지칭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점이다. 『大東地志』에 의하면, 황장치와 황장봉산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황장목을 생산하던 장소의 규모를 지칭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규모로 황장목을 채취하던 곳은 산 전체 혹은 일정한 구역을 설정하여 황장봉산으로 정하고 특정 장소에서만 황장목을 채취한 곳은 황장치로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지도 3에 보이는 獅子山 “黃腸”과 “白楊山黃腸”은 황장봉산으로, 치악

산 금산은 황장치로 해석할 수 있다.
 5) 황장금표의 銘文에서 地理情報를 얻을 수 있다. 朝鮮時代에 간행한 지도와 현대의 지도를 비교해 보면 지명이 바뀐 것을 흔히 볼 수 있으며, 산에 있어서는 지도상에 등장하는 것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물론 산 이름이 달라진 경우도 있고, 그 산의 지리적 位置價値가 달라짐에 따라 지도상에 등장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다. 禁標는 산 이름에 대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영월군의 獅子山은 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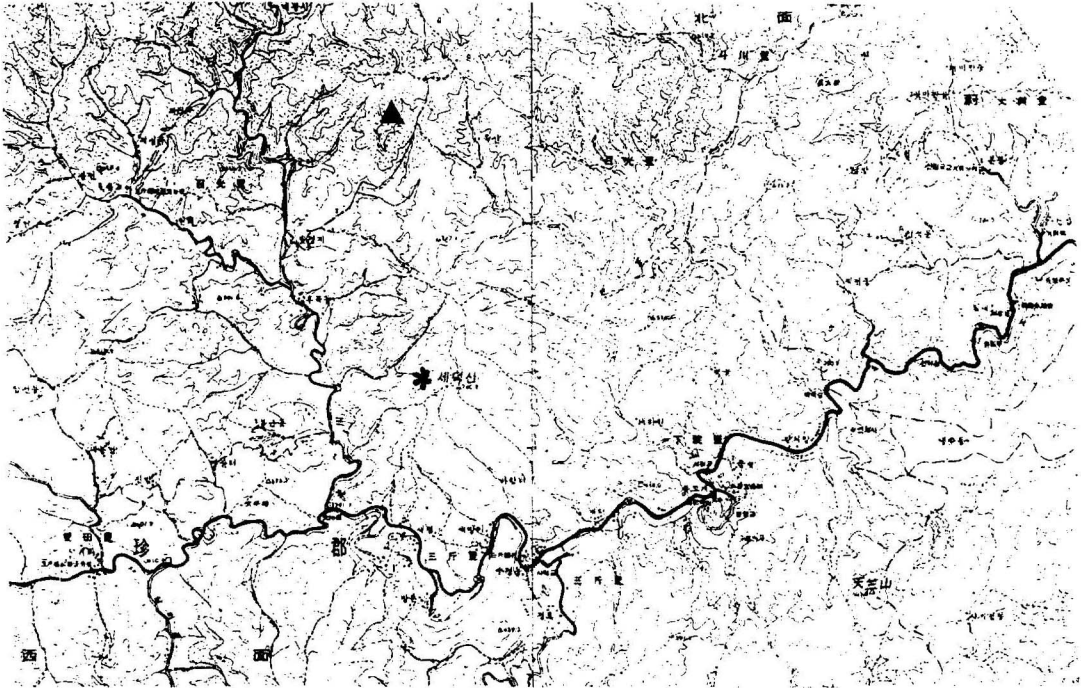


지도 3. {海東地圖}에 기재된 금산(▲)의 위치

지금이나 지도상에 獅子山으로 등장하고 있다. 황정골이 위치한 白楊山은 {大東輿地圖}에 등장하는데 현대에는 찾아볼 수 없다. 울진군의 生達山, 安一王山은 역시 {大東輿地圖}에 등장하는데 현대에는 찾아볼 수 없다. 현지 주민의 말에 의하면 금표가 위치한 뒷산이 生達山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지도(圖葉名; 소천; 5만분의 1 지형도)에서 찾아보면

36번 국도에서 召光里로 들어가는 갈림길에 “세덕산”이 등장하고 있다. 노선이 변함에 따라 랜드마크가 되던 산이 당달아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지도 3, 4 참조).

6) 황장금표는 옛 길의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현재 우리가 가장 널리 참고하고 있는 옛 지도는 {大東輿地圖}인데, 우리는 이것으로 옛길의 대체적인 노선을 알 수 있다. 그러



지도 4. 현대 지도의 세덕산(*)과 지명이 기록되지 않은 생달산(▲)의 위치

나 禁標는 비록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옛 길을 실질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원주시 학곡리의 새재 마을 입구에 있는 금표는 현재도 마을 진입로이며, 예전에는 이 길을 따라 새재를 넘어 원주시로 왕래하였다고 한다. 영월군 황정골의 금표 또한 신림으로 왕래하는 길가에 있으며(지도 1, 3 참조), 울진군 장군터의 금표도 생달현을 넘어 죽변으로 왕래하는 길가에 있다. 다만 울진군의 금표는 현재의 도로가 예전의 길보다 산 윗편으로 새롭게 개설된 것이어서 길가에서 2미터쯤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다. 영월군 사자산의 금표는 현재의 도로보다 약 1미터 정도 낮은 곳에 위치하는데 이것은 현대식 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路盤을 조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7) 황장금표는 지형의 변화상을 보여 주고 있다. 금표가 세인에게 특정한 사항을 알리고자한 것에 목표를 두었다면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에, 눈 높이가 정도에 위치하도록 하였을 것인데, 현재 우리가 보는 금표는 구룡사 입구의 것, 새재 마을 입구의 것, 황정골의 것, 장군터의 것은 대체로 무릎 높이 정도에 있다. 눈 높이에 위치했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

는 금표가 인제군의 안산 기슭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보면 위에 든 네 개의 금표는 토사의 퇴적이던, 토지 이용 형태의 변화의 결과이던 예전보다 상당히 지형이 변화된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6. 황장금표의 가치 인식과 보존을 위한 제언

황장금표는 임업 부문에 있어서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전해 주고 있는 자료이다. 특히 이들은 금석문으로 지리서와 관련 문헌들이 전하고 있는 사실들을 보완해 주고, 현장성 있는 사실을 명쾌하게 보여 주고 있어 충분한 보존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황장금표의 위치와 보존 조치의 필요성 여부를 살펴보면 6개의 금표 가운데 강원도 지정 기념물로 지정된 원주시 학곡리 구룡사 입구에 위치한 금표, 영월군 황정골에 위치한 금표를 제외한 4개는 시급히 보존 조치할 필요가 있다.

보존 조치가 화급한 이들의 현재 상태를 보면, 1)원주시 새재 마을 입구 길가에 있는 禁標는 시멘트로 포장한 마을 도로에 바로 접해 있어 통과 차량에 의해 어느 한 순간에도 훼손될 수 있는

처지에 있고, 2)인제군 안산 기슭의 禁標는 국립 동원구역내이기는 하지만 방치된 廢寺의 축대석에 포함되어 있어 바로 인접한 곳까지 미치고 있는 개발의 손길로 훼손될 위험이 있다. 3)영월군의 사자산 새터 마을의 것은 禁標가 있는 밭을 성토하여 평탄화할 계획이 있어 자칫 매몰될 가능성이 있고, 4)울진군의 장군터의 禁標는 정리되지 않은 주변 환경과 도로 정비 혹은 도로포장이라도 시행되면 자칫 멸실될 처지에 있다. 또 비석 형태로 세워져 비교적 보존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영월군 황정골의 禁標도 어디에서 이전하였는지, 어떤 방향으로 놓여있었는지하는 정확한 자료의 기록 보존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임업적으로 중요한 유물이 처해 있는 이러한 실정을 감안한다면 이들 禁標의 보존을 위하여 각기 적절한 보존 대책이 서둘러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結 論

黃腸木 產出地임을 알려주는 黃腸禁標는 현재 6개가 발견되고 있는데 이들 禁標를 중심으로 位置, 規模, 銘文, 發見 및 報告 事項, 關聯 文獻과의 比較 檢討 및 현재 상태에 대해 調査 分析을 하였다.

黃腸禁標는 조선 시대의 임업과 黃腸木 소나무에 대한 귀중한 史實을 전해 주는 것들로 지리서 또는 관련 문헌들과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불 때 문헌이 정확하게 전하지 못하고 있고, 애매하게 전하고 있는 것들을 명확하게 해주고, 문헌과의 相補性을 가지고 있는 귀중한 역사적 자료임을 알 수 있었다. 또, 현재까지 발견된 禁標와 관련 문헌과의 비교 분석 및 고찰을 통하여 우량한 소나무 資源의 分布地를 확인할 수 있었고, 금산과 봉산간의 位相, 지명의 浮沈, 옛 道路網의 단편 등을 究明, 確認할 수 있었다.

황장금표는 조선 시대의 관련 문헌들을 통하여 살펴보면 아직도 많은 수가 발견을 기다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黃腸禁標의 발견은 임업적으로 중요한 情報 - 우량한 소나무 資源의 分布, 소나무의 遺傳的 情報 및 山林文化의 단서를 제공해 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옛 道路網, 地名 및 地形의 변천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전해 줄 귀중한 역사 자료, 문화 유산의 획득이라고 할 수 있다.

本 研究를 계기로 더 많은 금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기 발견된 禁標의 維持 管理를 위한 대책들이 철저히 검토되고 이에 합당한 保存 對策의 수립을 제안한다.

인 용 문 헌

1. 강원대 박물관, 1986. 인제 옛북, 강원대 박물관 유적 조사보고 5집.
2. 강원 향토사 연구회, 1994. 원주군의 역사와 문화 유적.
3. 經國大典(법제처 편, 1981. 경국대전, 일지사; 한우근 외 역주, 역주 경국 대전,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4. 김태수, 1993. 안일왕 산성기, 실적문화(삼척문화원) 4 : 76-91.
5. 大東輿地圖(이우형 복각, 1990. 대동여지도, 광우당).
6. 大東地志(한양대학교 국학연구소, 1974. 대동지지,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7. 大典後續錄(한국학 문헌연구소 편, 1983. 대진속록, 후속록,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8. 大典會通(조선총독부 중추원, 1986. 대전회통, 민족문화사 영인본).
9. 萬機要覽(민족문화추진회, 1972. 국역만기요람)
10. 朴烽宇, 1992. 소나무, 황장목, 황장금표, 숲과 문화 1(2) : 12-16.
11. 朴烽宇, 1993. 황장목과 황장봉산. In, 전영우 편, 소나무와 우리문화, 숲과 문화연구회, 116-122.
12. 世宗實錄(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역, 세종 장헌대왕 실록).
13. 續大典(조선총독부 중추원, 1986. 신보수교집록, 민족문화사 영인본).
14. 受教輯錄(조선총독부 중추원, 1986. 신보수교집록, 민족문화사 영인본).
15. 新補受教輯錄(조선총독부 중추원, 1986. 신보수교집록, 민족문화사 영인본).
16. 新增東國輿地勝覽(민족문화추진회, 1986.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17. 輿地圖書(국사편찬위원회 편, 1973. 여지도서, 탐구당 영인본)

18. 영월군. 1982. 영월의 향기.
19. 英祖實錄(민족문화추진회 역. 영조실록).
20. 울진군, 안동대학교. 1991. 울진의 문화재.
21. 이희승 편. 1961.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22. 임경빈. 1995. 소나무. 빛깔있는 책들 175. 대원사.
23. 靑邱圖(백산 자료원. 1995. 청구도 건, 곤. 백산문화 영인본).
24. 최광식. 1994. 최근 발견된 울진 소광리 황장봉계 표석 판독문과 그 내용, 85-99. 제37회 전국 역사학 대회 발표 요지. 한국 미술사학회.
25. 海東地圖(한영우 편집책임. 1995. 해동지도. 규장각 자료총서. 서울대 규장각).
26. 허영환. 1989. 서울의 고지도. 삼성출판사.